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평상복과 노동복을 구분하였던 배경-

고광민

1. 제주도 복식의 전통

제주도의 옷은 남녀에 따라 달랐다. 남자 평상복은 바지와 저고리인데, 계절에 따라 옷감과 그것을 대는 법이 여자 평상복과 조금 달랐다. 봄과 가을에는 무명으로 만든 겹옷, 여름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 홑옷,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 겹옷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옷을 입었다.

저고리를 예로 들어보면, 겹으로 만든 것을 ‘접저고리’, 홑으로 만든 것을 ‘홑적삼’ 또는 ‘홑저고리’, 그리고 솜을 넣은 것을 ‘소개저고리’라고 하였다. 홑옷에는 감물을 들어 만든 갈옷을 입는 수가 많았다. 다만 두루마기와 버선은 방한(防寒) 목적으로 착용하였을 뿐, 여름에 착용하는 일은 없었다. ‘웃드르’ 사람들은 개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는 수도 있었다. 이런 옷을 ‘가죽두루마기’라고 하였다[사진 1].



〈사진 1〉 가죽두루마기(1912년, 구좌읍 김녕리)

여자 평상복은 치마저고리 ‘소중의’ 등이었다. 계절에 따라 남자 옷과 같이 봄과 가을에는 무명

으로 만든 겹옷, 여름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 홑옷,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의 겹옷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옷을 입었다. 홑옷에 감물을 들인 갈옷을 입는 수도 있었다. 해녀들은 잠수할 때 ‘물소 중의’라는 옷을 입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남녀의 전통 복식 중에서 갈옷은 노동복이나 다름없었다. 제주도 갈옷의 전통은 오래되었다.

베갯방이에 푸른 감의 감물을 들이면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진 줄을 모르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以短褐嘗染靑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汙汙 農家尤爲好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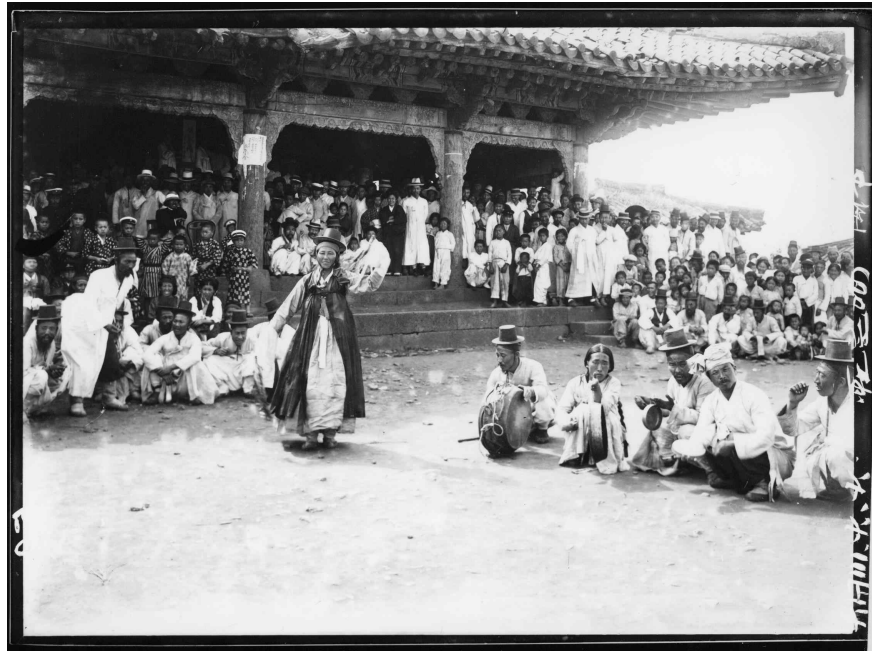
조선조 영조 41년(1765)에 편집된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김영길 번역본)에서 위와 같이 갈옷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2.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은 백의(白衣)다

1912년, 일본인 문화 인류학자 토리이루우조오(鳥居龍藏)는 제주도에서 유리건판 사진을 남겼다. 토리이루우조오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관덕정에서 입춘굿을 연출하였다. 입춘굿을 구경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 중에는 갈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사진 2, 3].



〈사진 2〉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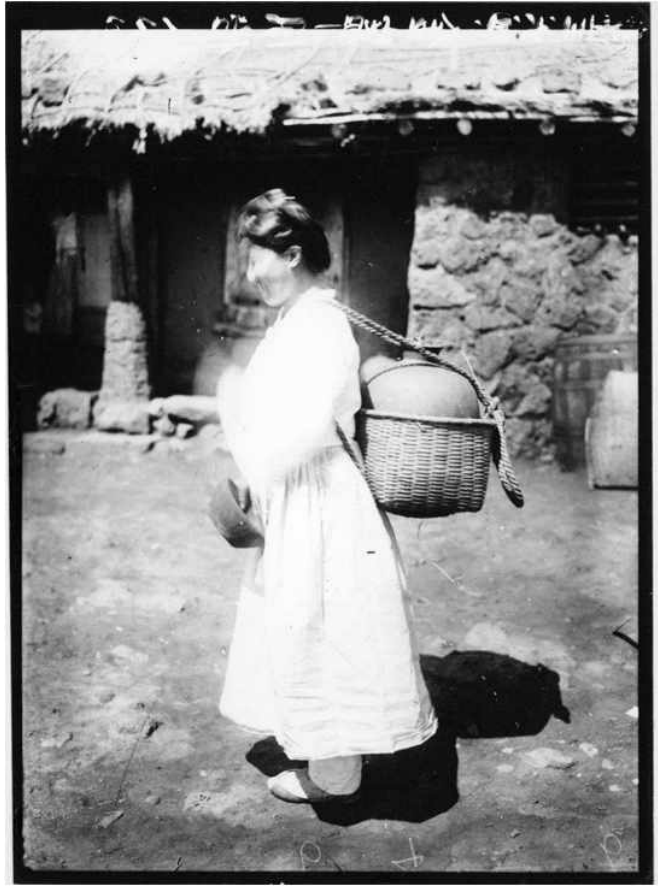


〈사진 3〉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제주도 여자들의 평상복은 관덕정 오일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오일장에 나온 제주도 여인들은 갈옷을 입고 있지 않았대도⁴⁾. 그리고 ‘허벅’이라는 물동이를 등에 지고 있는 여인도 하얀 옷을 입고 있다(사진 5).



〈사진 4〉 관덕정 오일장(1912년)



〈사진 5〉 허벅을 지고 있는 여인(1912년, 김녕리)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인 백의(白衣)는 한반도의 경우와 같다[사진 6].



〈사진 6〉 오일장(1940년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3. 백의 노동복과 갈옷 노동복

1940년 11월 16일,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는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사진을 남겼대사진 7). 그리고 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진도 남겼대사진 8). 제주도 이외 육지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백의를 입고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7〉 한반도 보리농사(1940년 11월 16일)



〈사진 8〉 논농사(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산야에서, 밭에서 바다에서 일할 때, 노동복인 갈옷을 입었다. 산야에서 ‘테우리’ 한 사람이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세미양오름’(575m) 북쪽 들판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가꾸고 있다[사진 9].



〈사진 9〉 테우리(1960년대, 제주시 아라동, 홍정표 촬영)

‘테우리’는 말이나 소를 들에 놓아 돌보며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삿갓’은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 모양의 모자이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갈적삼’은 매듭단추 대신 단추를 채웠다는 점이 돋보이고, ‘갈중의’에는 대님을 땀다. 제주시 아라동 사람들은 청명(4월 5일경)부터 소서(7월 7일경)까지, 이웃끼리 번갈아 가면서 암소와 숫소를 따로따로 가꾸었다. 이렇게 가꾸는 소를 ‘번쉐’라고 하였다. ‘번쉐’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 소를 한데 모아 주인들이 차례를 정하여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라는 말이다. 그리고 암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번쉐’를 ‘암쉐번’, 숫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번쉐’를 ‘부랭이번’이라고 하였다. ‘테우리’는 ‘부랭이번’을 가꾸고 있는 모양이다.

윗도리에 런닝셔츠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은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다[사진 10].



〈사진 10〉 밭일 하는 남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농부 세 사람이 밭에 ‘낭테’를 채우고 조의 씨앗을 뿌린 땅거죽을 다지고 있다. ‘낭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들어 조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땅거죽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이런 일을 ‘블린다’고 한다. ‘블린다’의 ‘블르다’는 밭로 밟게 한다는 말이다. 비교적 젊은 농부 두 사람은 윗도리에 런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신식 바지를 입고 있지만, 비교적 나이든 농부 한 사람은 윗도리에 런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이다. ‘갈중의’에는 대님을 묶지 않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장마가 겹친 소서 무렵에 밭에 조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거죽을 마소의 밭이나, ‘낭테’의 밭이나, ‘돌테’의 밭로 밟아주었는데, 이는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돌테’는 조나 밭벼 씨앗을 뿌리고 나서 돌멩이로 토양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조나 밭벼의 씨앗을 밭에 뿌리고 나서 ‘낭테’나 ‘돌테’로 땅거죽을 다지는 일은 제주도 동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수가 많았다.

밭에서 윗도리에 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은 여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다[사진 11].



〈사진 11〉 밭일 하는 여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저 멀리 비교적 나이 든 아낙네는 하얀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 ‘곰베’로 흙덩이를 바수고 있고, 가까이 비교적 나이 어린 아낙네는 검은 물 들인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 ‘꼬슬퀴’를 끌며 땅거죽을 펴고 있다.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고, ‘갈몸빼’는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홀바지이다. ‘곰베’는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씨앗을 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 쓰는 도구인 곰방메라는 말이다. ‘꼬슬퀴’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도구라는 말이다.

바다에서 머리에 ‘박세기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은 남자가 자리돔을 잡고 있다[사진 12].



〈사진 12〉 자리돔 잡는 남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박세기모자’는 해방 이후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하면서 쓰고 왔던 모자이다. 미군들이 제주도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과 바퀴 먹게 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터우’는 삼나무 여러 개로 평평하게 만든 배라는 말이다. ‘국자사들’은 국자의 형태로 생긴 자리돔잡이 그물이다. ‘국자사들’로 자리돔 잡는 일은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일정한 자리돔 어장으로 가서 닻을 드리워 ‘터우’를 세워놓고 ‘국자사들’을 배의 이물 쪽으로 드리운다. 바로 이 이물 중간쯤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걸쳐 두는, 나무로 만들어 고정한 갈퀴 비슷한 고리가 장치되어 있다. 이를 ‘버텅’이라 한다. ‘버텅’에 끼워 놓고는 한 손으로 ‘국자사들’ 손잡이를 잡아 준다. 그래야 ‘국자사들’ 손잡이가 조류에 쓸리지 않는다.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물안경을 잡고 물속으로 들여다보며 자리돔 떼가 그물 위에 몰려든 것을 확인한다. 자리돔 떼들이 확인되면, 배의 이물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받치고 약 60도 각도로 비스듬히 눕혀 잡아당긴다. 그물을 거의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릇으로 자리돔을 뜨면서 잡는다.

4.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김부근(1942년생, 남) 어르신의 가르침에서 제주도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을 가늠할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천둥지기를 ‘천봉답’이라고 한다. 이 마을 동쪽에 ‘태곡지’라는 저수지가 있다. 그 아래쪽 논들 이름이 ‘송내봉답’이다. 모두 100마지(1마지기 200평)이다. 김 씨 어르신은 이곳에 5마지기를 소유했다. 물이 귀했다. ‘송내봉답’은 질흙으로 된 땅이다. 그러니 ‘봉답’이 가능하였다. 이곳 토양 특성에 따른 이야기도 전승되었다. “‘송내봉답’의 흙물이 옷에 묻으면 아기 셋 낳을 때까지 씻기지 않는다.”고 말이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지역에서 평상복과 노동복은 백의(白衣)였다. 백의를 입고 논밭에서 노동하였을 때, “흙물이 옷에 묻으면 아기 셋 낳을 때까지 씻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평상복은 백의, 노동복은 갈옷을 구별하는 일상적 삶 속에서, 갈옷을 입고 노동하였을 때 흙물의 염려는 있을 수 없었다.

제주도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은 제주도의 화산회토(火山灰土) 때문이다. 제주도 화산섬 땅의 흙물은 백의에 스며들면 씻기지 않음은 경상북도 질흙으로 된 땅의 천둥지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이것이 제주도 사람들의 의생활, 곧 평상복을 백의, 노동복은 갈옷 전통의 탄생 배경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제주도 갈옷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에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의 문화유산이다.